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㉑ 뉴델리에서 며칠 ③

▶한줄 요약
모두 이석원이 제 아버지인 지안 금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지안과 정우 스님은 이석원을 난타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었다.



금어 이석원이 난타의 환생?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인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말 흉내를 제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조실스님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살불살조의 경지를 그대들이 안다고? 만약 그대들이 안다면 무엄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오. '그 대답은 붓다가 남긴 스리나가르의 칼이 할 것이다.' '지금 칼이라고 하였는가?' '그렇다. 나는 그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갈 것이다.'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 지안 금어의 목에 난 상처는 네놈이 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촛대에 너의 지문이 묻었다고 해. 촛대로 내려친 것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다는 말이야. 그럼 네놈이 범인 아닌가.

-마음대로 생각해라.

여기까지 말하고 조실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놈이 스리나가르로 가기 전 나를 한 번 찾아왔더랬소. 그는 시골 모 수도원에 숨어서 땔감이나 해 나르면서 연명하고 있었다고 했소. 내가 물었소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그는 대답이 없었다.

-수사관들이 너를 잡으려고 한다는데 정말 아버지를 죽인 것이냐?

조실이 묻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보내드리기는 했지요.

-사람들은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야단인데…?

그가 너무 태연하게 말했으므로 조실은 뜨악하게 그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마음대로 생각하라지요.

그가 내팽개치듯이 대답했다.

-그럼 네가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이냐?

조실은 어이가 없었지만, 물었다.

-죽이긴 죽였지요. 세상 빛을 그렇게 갚게 했으니까.

-세상 빛이라니?

-세상모르고 살 불목하니를 진리를 지향하게 한 죄. 미물에게 진리의 풍광을 가르친 죄.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흐흐흐 웃었다.

-나도 곧 그렇게 갈 겁니다.

그가 웃다 말고 발악하듯 말했다.

-무슨 소리냐?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배고픈데 밥이나 좀 주십시오.

-그래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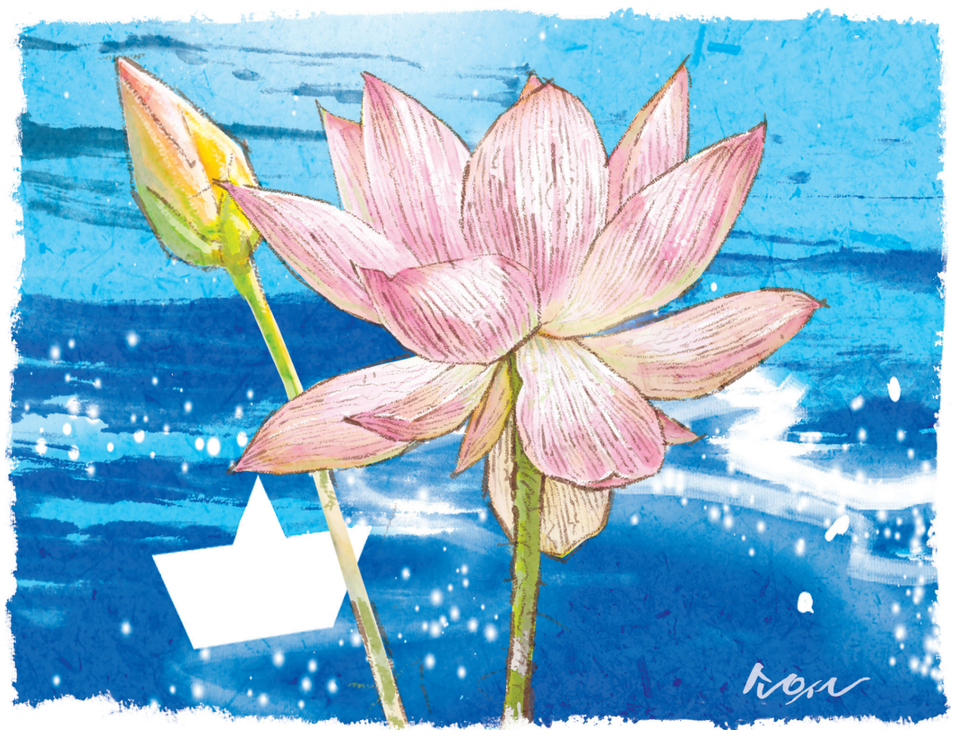
-곧 떠날 것입니다. 내가 잠시 여기 머무는 것은 적어도 날 경찰서에 고발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도 내 아버지처럼 미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조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했다. 이곳에도 제 아비처럼 미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때 사원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한국에서 들어와 살고 있기는 했었다. 정우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던 스님이었다. 그에게 26살 난 딸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대처 종단의 스님도 아니고 해서 말들이 많았다. 딸의 이름은 미순이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묘했다. 구례 절에 있을 때 조실은 공양주가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들어올 때 데려왔는데 미순이는 공양주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공양주와 정우 스님 사이에 난 딸이었다. 공양주가 이 절 저 절을 헤맬 때 수도에 지쳐 병이든 스님을 우연히 구해주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미순이를 낳은 것이다. 그렇다고 정우 스님이 공양주와 함께 생활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양주는 사원 뒤 객사에 살았는데 딸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어 있었다. 미순이도 그 후 아비를 따라 인도로 들어왔다. 들어오기가 무섭게 방을 얻어 생활하고 정우 스님은 천추사원으로 들어왔다. 천추사원에서 그는 포교를 맡았는데 천추사원의 말사인 암자에서 딸과 만나고는 하였다. 바로 이지안 금어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미순이는 이석원을 보자마자 반하고 말았다. 석원이 보기에 그녀는 26살로 보기에는 너무도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얼굴이 어찌나 희고 청순해 보였던지 꼭 박꽃 같았다. 그런데 그녀는 이석원이 금어임을 알면서도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석원이 잠시 사원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그녀의 아버지 정우 스님의 행동이 이상했다. 이석원과 자신의 딸 사이를 눈치챈 정우 스님의 불호령이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는 이석원을 향해 합장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오시다니요?

정우 스님의 행동과 말이 이상해 이석원은 자신도 모르게, '네?' 하고 물었다.

-난타 비구께서 이렇게 오시다니요.

이석원은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난타? 난타라니?

-왜 이러십니까?

정우 스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석원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출타에서 돌아오자 그 말을 그대로 했다.

어이가 없어 껄껄거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의외로 정색하고 아들에게 물었다.

-정우 스님이 너더러 난타라고 했다고?

-네. 미쳤더라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내저었다.

-제대로 보았구나.

-네?

-내 천추사원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우 스님을 만나봐야겠어.

여기까지 말하고 조실이 말을 끊었다. 말을 하느라 숨이 가쁜 것일까 생각하며 나는 조실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실은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만나보았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그제야 조실이 눈을 뜨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만나 보았다고 하오.

-어떻게 되었나요?

-정우 스님에게 지안 금어가 물었다고 하오. 왜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랬더니요?

조실이 대답을 하려다 말고 망설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는지 잠시 후에야 말을 이었다.

-기다렸다고 하오.

-기다려요?

-어느 날 참선(參禪) 중에 보았다는 것이오. 난타의 모습을. 난타가 오고 있었다고 하오. 천지가 그물(網)인데 그 그물을 뚫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오.

-그물요?

조실이 나의 되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물을 뚫고 오다니요?

-카르마(karma) 말이오.

카르마?

카르마라고 한다면 생사유전, 그 과정에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을 말한다.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바로 업(業)이다.

-그런데요?

생각하다가 내가 물었다.

-그 업이 망(網)이 된다는 말이오.

-망? 아, 그물!

-맞소이다. 카르마 망 말이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생사유전의 그물이 쳐져 있었다고 하오. 그 누구도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데 난타가 그물은 뚫고 이승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이오.

나는 할 말을 잃고 조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윤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풀썩 웃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난타가 이 세상으로 왔다는 말인가요? 그가 바로 이석원이다?

조실이 내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다시 웃을 수가 없었다. 조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엄숙했기 때문이었다.

-묘하군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조실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정우 스님이나 지안 금어의 경지가 그 정도는 되었던가 보오. 삼세를 내다볼 만큼. 얼마나 수행이 깊었으면….

-믿을 수가 없군요?

-믿어지지 않는가 보오?

조실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나를 따뜻한 어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속에서는 미쳤다는 소리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어찌 그렇지 않겠소. 미치지 않았다면….

조실이 나직이 한숨을 물다가 조용히 내뱉었다.

-그러니까 정우 스님이란 분이 이석원으로 환생한 난타를 알아보았다는 말인데…. 이석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엔 제 아비나 정우 스님이나 미쳤다고 했다가 그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벽을 보고 돌아앉았다는 것이오.

-돌아앉았다면 역시 그의 참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네요?

-맞소이다.

나는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수긍할 수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할 수도 없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각본인지 모르겠소.

조실이 고개를 내저으며 뜬금없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다음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 후 일이 점점 묘하게 얽혀가기 시작했소.

-네?

-그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오. 정우 스님이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

-꿈꾸다니요?

-정우 스님은 엉뚱하게도 이석원을 중심으로 종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오.

-예? 종단?

-그래서 지안 금어가 한국으로 나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하긴 오해이긴 했소만. 그 도반(정우 스님)이 어느 날 이석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못다 펴신 법을 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교계는 어지럽게 종파가 갈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우 스님의 말에 이석원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오. '정말 무슨 소리요? 나 이석원입니다. 이석원! 수도를 하다가 미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청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정우 스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아버지도 미친 소리를 해대더니 나는 부처 모습이나 그리는 금어요 금어. 금어 이석원.'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세상을 구하려 오셨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다시 왔겠습니까. 그것은 속세의 아내를 잃고 다시 일어나 이룬 법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법을 펼 때가 온 것입니다.〈계속〉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불교의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불교방송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사

위와 같은 인사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로 모십니다.

○ 자격 요건 :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 제출 서류 : ①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상벌사항 기재, 서명 날인 포함)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 용지 3매 이내)
③ 경영계획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④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계증, 신도증, 기타)
○ 제출 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09시 ~ 7월 21일(금) 17시까지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문의 전화 02-719-1855)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 1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2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3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